

한·일 수출보험과 수출촉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on Export Insurance for Export Promotion

이서영(Seo-Young Lee)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겸임교수 (주저자)

홍선의(Seon-Eui Hong)

배화여자대학 무역학과 겸임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수출보험운영의 한·일 비교 | 참고문헌 |
| III.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Abstract |
| IV. 모형과 실증분석 | |

Abstract

Because Korea and Japan has joined WTO and OECD,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a direct export-promoted policy such as export subsidies. Therefore, the only policy which is internationally valid for promoting an export is the export insurance. Hence export insurance system became more useful tool since it's one of the few allowed subsidies under WTO. This paper examines to find the impacts of export insurance on the export supply in Korea and Japan. The period of data is from 1980 to 2006.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export subsidy in export supply,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stationarity nature of the concerned variables. The unit root tests show that all variables are not I(0) Time Series. Instead, they are I(1) Time Series. To this, cointegration verific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use of Johansen verification method to defin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long-term balanc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concerned variables are revealed to be cointegrated. In order to analyze, this study introduce a VEC model.

In this paper we construct two VEC models. The one is about Korea, the other is about Japan. The empirical evidences show that export insurance system has not contributed to promoting export supply in Japan. But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f Korea export insurance upon the export supply.

Key Words : Export insurance, VECM, Export Supply, Export Promotion, Export

I. 서론

WTO체제 하에서 세계무역환경은 공정·자유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덤핑·관세 및 보조금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출지원 제도는 거의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각 국의 정부는 자국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지원방식에 대하여는 제재가 약한 편이므로 간접지원방식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간접지원방식 중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보조금과 수출보험을 들 수 있는데, 연구개발보조금은 수출성과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수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므로 간접보조금에 해당된다. 연구개발보조금과 더불어 간접지원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이 있는데, 수출보험은 대외거래에서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정책적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수출보험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운영기관이 정부기관 혹은 준정부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보험 운영상의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출보험은 각 국 정부의 무역정책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금융 또는 수출보조금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WTO체제 하에서 수출보험제도는 효용성이 큰 수출지원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 제한조치는 수출보험이 간접적인 무역정책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WTO 회원국의 수출보험 지원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정책성이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1950년에 출발한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는 1980년대 50% 이상의 높은 활용율을 기록할 정도로 무역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촉진 전략을 펼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출보험제도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출범하면서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적극적인 보험운영 등으로 수출보험이 크게 활성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활용율과 지원실적(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수출보험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최근 들어 수출보험의 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초점을 두어 비교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즉, 한국과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가 양국의 수출촉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로 선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양 국의 수출보험 손해율과 수출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고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다. 제 III 장에서는 수출보험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기술할 것이며, 제 IV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가 수출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실증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제 V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II. 수출보험운영의 한·일 비교

1. 수출보험 운영체계

한국의 수출보험은 1969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래로 보험사업 운영의 주체는 정부지만, 업무만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는 정부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1969년 1월 22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는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77년 1월 1일부터 1992년 7월 6일까지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러한 전담체제로 인해 수출보험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운영으로 수출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992년부터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업무를 독립기관 체계로 전환하여 직접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 전담기구로서 독립된 조직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외거래와 관련된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여 수출자의 신시장 개척을 과감히 지원하고, 수출신용정보센터를 통하여 전세계 수집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대한 신용정보 자료를 수출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한국수출보험공사, 2002: 71-87).

수출보험 운영방법은 개별보험인수방식과 포괄보험인수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을 할 때마다 보험자가 개개의 건을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현재 수출보험 전 종목에 적용된다. 반면 포괄보험인수방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사전에 특약을 맺어 특정상품 및 결제조건에 수출전략을 자동적으로 보험에 부보하고, 보험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제도로서 시행방법상 조합별, 당사별, 상품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수출보험의 운영재원은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출보험법 제30조에 의거 수출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출연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보험은 1950년에 창설된 보통수출보험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수출보험은 1987년에 선불수입 등을 보험대상에 추가하면서 무역보험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일본의 무역보험제도는 수출보험의 전담기관인 NEXI(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일본무역보험)가 직접운영하고 있다. NEXI는 일본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4월 일본정부의 수출보험 업무를 인수하여 독립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일본의 무역보험은 일본기업이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야기된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컨트리리스크 평가나 해외 거래은행, 기업의 신용조사 등 부보, 심사에 따른 제반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수출보험 운영체계는 NEXI를 중심으로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NEXI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재단법인 무역보험기구(JTIO: Japan Trade and Investment Insurance Organization)와 수출조합이 NEXI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서영, 2007: 285).

경제산업성은 통상산업성을 모체로 2001년 1월 발족한 신규 부처로서 수출보험법, 시행령, 수출보험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NEXI의 연도별 경영평가와 NEXI의 담보력 보안을 위해 NEXI 인수건을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조윤명, 2004: 22).

수출보험 운영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별보험인수방식과 포괄보험인수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보험의 운영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영업수익, 잠수익으로 충당하는데 무역보험특별회계법에 의거하여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는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출거래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수출거래와 관련된 외환·금융시스템에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산업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출금융에 따른 대출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2. 수출보험의 이용연황

1) 인수실적

수출업자들은 해외수입업자 및 수출상대국 정부의 예기치 않은 수출대금 미지급위험을 회피하고자 수출보험에 부보를 하게 된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제거해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및 일본의 양국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자국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 출범이후부터 수출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에 따라 인수실적이 크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수출보험에 대한 정부로부터 출자기금의 확충을 통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선 한국의 인수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에 제시되어 있듯이 '00년 약 2백8십억 달러의 인수실적을 기록한 이후 '0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4.5% 상승한 약 4백1십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06년에는 약 8백8십억 달러의 인수규모이다. 종목별 인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종목 중에서 2006년 기준으로 단기수출보험이 73.4%로 가장 높은 인수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변동보험이 19.7%, 중장기수출보험 3.1% 순이다. 팔목할 사항은 환변동보험의 인수규모가 2000년 도입당시 3.1%에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보험이 개시된 1950년부터 10년간 8천1백5십억 달러의 인수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

속적인 증가를 기록하여, '90년-'99년 기간 동안에는 약 1조6천3백8십억 달러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04년에는 약 1천1십억 달러를 인수하여 '03년 9백6십억 달러보다 4.9% 증가하였다. '05에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약 1천1백7십억 달러를 그리고 '06년에는 1천2백5십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1천억 달러 이상의 인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수출보험 인수실적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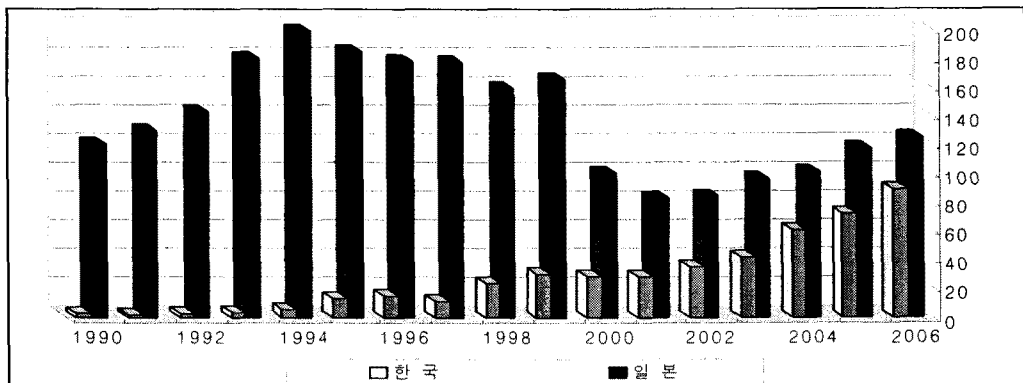
구분	'80-'89	'90-'99	'00	'01	'02	'03	'04	'05	'06
한국	11.7	107.8	28.5	28.1	35.0	41.9	60.3	72.2	88.9
일본	767.4	1638.7	100.3	83.4	84.8	96.6	101.7	117.5	125.5

주 : 수출보험인수실적은 그 해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임.

자료 : NEXI, Annual Report, various years;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각 호.

일본의 수출보험은 현재 8개의 종목이 운영되고 있지만, 종목별 인수실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6년을 기준으로 무역일반보험의 인수실적이 9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해외사업자금대부보험이 점유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2.0%로 상당히 저조하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의 인수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기록이다.

한국의 단기수출보험이나 일본의 무역일반보험은 주로 수출자가 상품수출 계약에 사용하는 종목이다. 한국과 일본은 주로 단기수출보험과 무역일반보험 종목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양국은 공산품 수출국으로서 상품거래 계약에 수출보험제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NEXI, Annual Report, various years; 한국수출보험공사, 전계서, 각 호.

[그림 2-1] 한일 수출보험 인수실적 비교

2) 수출보험 활용연망

총 수출액 대비 지원비중을 나타내는 수출보험 활용율은 한국의 경우 '8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선진국 중심 수출패턴으로 수출보험 5%대의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해외건설수출 격감으로 수출보험 활용율이 저조하여 낮은 활용율을 기록하였다.

'92년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 발족하면서 서서히 수출보험에 대한 활용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주었으며, '00년에는 총 수출의 13.5%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해 주었다. 특히 '00년 이후 부터 활용율이 매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에 제시되어 있듯이 '02년과 '03년에는 각각 17.9%와 18%를 기록하였으며, '04년도에는 22.7%로 우리나라 수출보험 활용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06년에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29.4%를 기록하여 우리나라도 30%대의 높은 수준의 수출보험활용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80년대 중반까지 50% 이상의 높은 활용율을 유지하였다. '80년 중반부터는 초반과 비교하여 활용율이 다소 낮아진 편이만, 그래도 30-40%대의 높은 활용율을 기록하였다.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은 '80년부터 '99년까지 평균 43%의 높은 활용율을 기록하였다. 이 당시 일본정부는 수출보험제도를 통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00년대 진입하여 일본의 수출보험 활용율은 '03년까지 20%대를 유지하다가 '05년, '06년 각각 19.7%, 16.7%를 기록하였다. 특이사항은 과거보다 활용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최근 수출보험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일본은 과거에 비해 수출보험의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보험이 일본의 수출보험보다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및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2> 수출보험의 활용율

(단위 : 십억 달러, %)

구 분		'80-'99	'00	'01	'02	'03	'04	'05	'06
일본	수출실적	-	479.3	403.4	416.7	471.8	565.7	594.9	752.5
	인수실적	-	100.3	83.4	84.8	96.9	101.7	117.5	125.5
	활용율	43.0	20.9	20.7	20.4	20.5	18.0	19.7	16.7
한국	수출실적	-	217.0	199.4	195.1	232.1	264.9	288.1	302.6
	인수실적	-	28.5	28.1	35.0	41.9	60.3	72.2	88.9
	활용율	7.4	13.1	14.1	17.9	18.0	22.7	25.1	29.4

주 : 수출보험인수실적은 그 해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임.

자료 : NEXI, Annual Report, various year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various years; 한국 수출보험공사, 전계서, 각 호.

3. 수출보험의 보상 및 사후관리 현황

보험금 지급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수출보험기관이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부담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한국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01년도에 약 3,61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04년에는 3,8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05년도에는 전년보다 34.8% 증가한 5,50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01년도의 경우에 일본은 약 500억 엔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중에서 신용위험에 약 300억 엔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02년에는 전년도 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30% 증가하였는데, 신용위험의 경우 전년도 보다 지급액이 줄어든 반면 비상위험에 대한 지급액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리고 '03년, '04년, '05년에는 지급된 보험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05년에는 '02년보다 94.3% 줄어든 37억 엔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매해 지급되는 보험금중 80%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지급된 보험금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손해율은 수출보험기관의 보험료 수입에 대한 수출보험 보상금액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수출보험은 정책보험이므로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수출보험이 그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수출보험이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박운서, 1993: 2-5).

한국의 경우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90년 이후 미국 US LINES 파산 및 이라크 전쟁에 따른 대형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93년 이후 200% 수준의 손해율을 기록하다가 '00년에는 '98년부터 시행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지원시책 중 무역어음보증 지원건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율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00년 이후부터 '05년까지 손해율 수준은 과거보다 다소 낮아 졌으나 평균 360%대의 수준이다.

<표 2-3>연도별 손해율 변화추이

(단위 : 십억 엔, 십억 원, %)

구 분		'80-'89	'90-'99	'00	'01	'02	'03	'04	'05
일본	보험금(A)	-	-	32.4	49.9	65.1	23.0	12.9	3.7
	보험료(B)	-	-	32.9	42.1	34.3	43.6	41.0	45.5
	손해율(A/B)	319.5	251.4	98.4	118.5	189.8	52.8	31.5	8.13
한국	보험금(A)	-	-	990	361	381	363	408	550
	보험료(B)	-	-	81	85	89	108	131	174
	손해율(A/B)	40.2	300.9	1,218	426	430	337	312	315

자료: NEXI, Annual Report, various years; 한국수출보험공사, 전계서, 각 호.

일본의 경우 '90년대 250%대의 수준에서 '03년, '04년, '05년 각각 52.8%, 31.5%, 8.13%를 기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제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NEXI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운영과 비교하여 일본 수출업자를 위해 적극적 혹은 공격적인 수출보험운영이 안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1. 국외연구

Sandra M. Huzagh and Mark R. Greene(1982)는 수출제품, 수출경험, 연간 총 판매액이 수출기업의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정하여 수출기업의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도에 따라 수출보험 활용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0년 이상 수출한 기업들은 수출보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총 판매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보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고, 수출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고 수출경험이 없는 수출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출보험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Huzagh, Sandra M. and Greene, Mark R., 1982: 256-268).

Dewit(1996)은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수출보험이 정부의 보조금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의 의미하였다. 따라서 Dewit의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을 수출보험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수출보험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본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수출에서 수출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12% 정도이며, 이들 국가들의 수출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조정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수출보험이 국제무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제무역시장에서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을 분산하는 그 본래의 기능에 의하여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G. Dewit, 1996: 1-20).

Abraham and Dewit(2000)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벨기에 정부가 수출보험을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벨기에 수출기업은 수출보험에 큰 폭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벨기에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에 수출보험 제공 시 수출시장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F. Abraham and G. Dewit, 2000: 5-26).

Mah(2003)는 영국의 수출보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모형설정에 있어서 수출공급 함수를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에는 수출의존도(수출액/GDP)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

과 수출보험변수로서 $1 + \text{수출보험보조율}((\text{수출보험금} - \text{수출보험료} - \text{회수금}) / \text{수출액})$ 을 선정하였다.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단위근 검정 결과 시계열이 $I(1)$ 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OLS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변수는 수출공급 증진에 유의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Mah의 연구에서는 영국의 수출보험은 수출공급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Jai S. Mah, 2003).

Mah(2006)는 일본의 수출보험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수출보험보조금이 일본의 수출공급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종속변수에는 수출의존도(수출액/GDP)를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 수출보험보조금, 국내수요압력(실업률)을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공급 증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일본의 수출보험은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Jai S. Mah, 2006: 646-652).

2. 국내연구

박진근(1989)은 수출보험 인수액이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이용율의 함수라고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상수지와 수출보험 인수액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출보험 이용율과 수출보험 인수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 영향력이 수출보험 이용율이 경상수지보다 더 큼을 제시하였다(박진근, 1989: 53-72).

김희국(1998)은 1987년 1분기부터 1997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대상으로 벡터자기회귀 모형(VAR : Vector Autoregressive Model)에 의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사용하여 수출에 대한 예측오차의 분산 중에서 수출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부분을 계산하였다.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해 분석한 결과 수출보험의 수출축진효과가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국, 1999: 16-26).

이시영·양지환·전성희(2001)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의 각 국별 수출액과 수출보험인수실적을 적용한 합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에 미치는 수출보험의 영향은 정(+)의 값을 보였고,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값은 0.56을 나타내어 수출보험인수실적이 10% 증가하였을 경우 수출은 5.6%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이시영·양지환·전성희, 2001: 17-39).

김세영·이서영(2003)은 수출보험의 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01년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시계열들의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0)$ 시계열이 아니라, $I(1)$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1차 차분한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인수

액의 탄력성 값이 0.12로 예상한 부호를 얻었으며, 1% 수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수출보험인수액의 증가가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김세영·이서영, 2003: 117-134).

이서영(2007)은 일본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즉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인수액은 10%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공급의 증가에 있어서 수출보험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이서영, 2007: 283-299).

IV. 모형과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자료

수출보험제도는 국내 수출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던 수출수요함수 보다는 수출공급함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Arslan and Wijnbergen(1993), Faini(1994), 그리고 Barlow and Senses(1995) 등은 수출보조금은 수출산업의 생산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수출업자의 채산성이 증가하므로 이는 수출공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일 양국의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사용되어진 자료로는 수출보험손해율, 상대가격 그리고 국내수요압력(실업율)을 이용하였다. 수출보험변수로 사용되어진 수출보험손해율은 수출보험사업운영의 위험관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변수로서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보험금 지급액이 적거나 보험료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출보험의 운영이 비교적 공격적인가 보수적인가를 유추할 수 있다.

수출 및 GDP는 IMF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수출보험손해율은 일본무역보험기구에서 발행하는 무역보험과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출보험에서 추출하였으며, 수출상대가격과 실업율은 한국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와 일본통계청 홈페이지(<http://www.stat.go.jp>)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격변수들은 수출공급함수이므로 각각 원화와 엔화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수출수요는 세계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국제통화인 달러를 표시하지만, 국내공급은 생산자의 수출채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자국의 통화로 표시 되었다.

추정모형을 다음의 식 (1)과 (2)로 나타낸다. 식(1)은 한국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이며, 식(2)는 일본의 수출공급함수 모형이다.

$$KEXS(t) = a + bKRP(t) + cKUP(t) + dKSON(t) + e(t) \dots\dots\dots (1)$$

$$JEXS(t) = a + bJRP(t) + cJUP(t) + dJSON(t) + e(t) \dots\dots\dots (2)$$

- 여기서 *EXS*: 수출공급(수출액/GDP)
- RP*: 수출상대가격(수출물가지수/도매물가지수)
- UP*: 국내수요압력(실업율)
- SON*: 수출보험손해율
- e*: 오차항

각 변수에는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연로그를 취한다.

위 식에서 추정계수 *b* - *d*는 한국과 일본수출에 관련된 변수의 탄력성 크기를 나타낸다. 추정계수 *b*는 양국의 수출상대가격의 탄력성으로 부호는 정(+)의 부호를 기대한다. 국내가격에 비해 높은 수출가격은 수출공급을 증가 시킬 것이다. 즉, 수출상대가격은 국내판매에 비해 유리해지면 수출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추정계수 *c*는 실업율의 탄력성으로 부호는 부(-)의 부호를 예상한다. 경기순환과정에서 일국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되면 그 나라의 수출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내경제가 침체하면 수출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즉, 한국과 일본의 수요압력이 증가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요압력이 감소하면 수출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추정계수 *d*는 수출보험기관의 손해율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이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으므로 수출보험의 추정계수는 정(+)의 부호를 예상한다. 따라서 *b* > 0, *c* < 0, *d* > 0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실증분석

1) 단위근 검정

자료들의 안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위근(unit roo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근을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자료를 회귀분석에 이용할 경우 가성회귀 즉,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R*²값 혹은 *t*-값이 증가하여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사이에도 마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근을 가지는 시계열은 언제든지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누적됨으로써 최초의 점으로부터 무한히 발산해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위근을 가지는 시계열을 전통적 방법에 적용하여 통계 분석할 경우 그 결과가 무

의미해 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근 검정은 ADF(Augmented Dickey-Fuller) 방식과 PP(Phillions and Perron)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차선택에 있어서는 Akaike의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였다.

단위근 검정결과 한국은 LUP(실업률)만 수준변수에서 ADF방식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P방식 추정에서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은 ADF 및 PP방식 추정에서 단위근이 존재함이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분석에 사용되어진 모든 변수들이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임이 분석결과 나타났다.

수준항에 대한 1차 차분변수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한 경우에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듯이 두 방식 모두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위근 검정 결과 각 변수들이 I(1)이라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준변수를 이용하여 OLS를 수행한다면 가성회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분하여 단위근을 제거한 변수를 이용하여 단순히 OLS방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장기균형관계의 정보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장기적 균형관계의 존재유무를 판정하기로 한다.

<표 4-1> 단위근 검정 결과

변수	한 국				일 본			
	ADF Test		PP Test		ADF Test		PP Test	
	수준	차분	수준	차분	수준	차분	수준	차분
LEXS	-1.2	-4.8**	-2.5	-3.9**	-0.3	-3.5**	-0.8	-3.9***
LSON	-2.1	-3.7**	-1.9	-6.3***	-2.6	-3.3**	-2.1	-3.7**
LRP	-0.2	-3.5**	-0.3	-5.0***	-1.4	-4.1***	-1.3	-4.6***
LUP	-2.9*	-4.3***	-2.5	-3.9**	-1.5	-2.8*	-1.2	-2.8*

주 : 1) 단위근 검정방식에 선형추세치는 포함하지 않고 상수항만을 고려함.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있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

2) 공적분 검정

공적분이란 통계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불안정한 시계열 사이에 안정적인 잔차항을 생성시키는 선형 결합이 존재할 경우 이들 사이의 선형결합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통계적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불안정한 시계열들이지만, 이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면 이들 변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즉, 단위근이 하나 존재하는 I(1)변수들의 선형결합이 단위근이 존재치 않는 I(0)변수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두 변수를 선형결합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변수는 두

변수의 장기적 관계를 나타내게 되고, 선형결합에서 새롭게 생성된 변수가 단위근을 갖지 않는다면 두 변수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Johansen(1988, 1991)과 Johansen and Juselius(1990, 1992)는 공적분 관계의 수와 모형의 파라미터를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고 검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한슨 공적분 검정이라 한다. <표 4-2>와 <표 4-3>은 Johansen의 기법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실증분석에 사용되어진 변수 간의 공적분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r \leq 1$, $r \leq 2$, $r \leq 3$ 의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1%,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검정치가 $\lambda_{trace}(0) = 58.702$ 의 경우 5% 및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r \leq 1$, $r \leq 2$, $r \leq 3$ 의 경우에 1%, 5%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있으나 검정치가 $\lambda_{trace}(0) = 57.523$ 의 경우에는 5% 및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변수 간에는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1)$ 변수를 차분하여 정상성을 회복한 후 실증분석하면 된다. 한국과 일본의 분석에서와 같이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이 적절하게 된다.

<표 4-2> 공적분 검정 결과(한국)

귀무가설 (공적분 벡터의 수)	추정 검정값	5% 임계치	1% 임계치
None	58.702	47.21	54.46
At most 1	26.769	29.68	35.65
At most 2	6.659	15.41	20.04
At most 3	0.001	3.76	6.65

주 : 1) 시차적용은 AIC의 적정시차 1을 적용함.

2) $H_0: \gamma = 0$ 을 검정(귀무가설이 채택되면 공적분 관계가 없음).

<표 4-3> 공적분 검정 결과(일본)

귀무가설 (공적분 벡터의 수)	추정 검정값	5% 임계치	1% 임계치
None	57.523	47.21	54.46
At most 1	25.929	29.68	35.65
At most 2	8.412	15.41	20.04
At most 3	0.609	3.76	6.65

주 : 1) 시차적용은 AIC의 적정시차 1을 적용함.

2) $H_0: \gamma = 0$ 을 검정(귀무가설이 채택되면 공적분 관계가 없음).

3. 오차수정모형에 의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수준변수들 사이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벡터오차수정모형 (VECM)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간의 단기동태모형을 추정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Delta LKEXS_t = & b_0 + \sum_{i=0}^{k-1} b_{1i} \Delta LKEXS_{t-i} + \sum_{i=0}^{k-1} b_{2i} \Delta LKRP_{t-i} + \sum_{i=0}^{k-1} b_{3i} \Delta LKUP_{t-i} \\ & + \sum_{i=0}^{k-1} b_{4i} \Delta LKSON_{t-i} + b_{5i} EC_{t-1} + \mu_t \dots\dots\dots \text{식(3)} \end{aligned}$$

$$\begin{aligned} \Delta LJEXS_t = & b_0 + \sum_{i=0}^{k-1} b_{1i} \Delta LJEXS_{t-i} + \sum_{i=0}^{k-1} b_{2i} \Delta LJRP_{t-i} + \sum_{i=0}^{k-1} b_{3i} \Delta LJUP_{t-i} \\ & + \sum_{i=0}^{k-1} b_{4i} \Delta LJSON_{t-i} + b_{5i} EC_{t-1} + \mu_t \dots\dots\dots \text{식(4)} \end{aligned}$$

식(3)과 식(4)는 각각 한국과 일본의 오차수정모형을 나타낸다. 이들 모형에 AIC값을 최소화하는 시차 1을 적용하여 모형을 추정하기로 한다.

<표 4-4>는 수출공급에 관한 단기 균형식을 의미하는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차수정모형에서 한국의 경우 수출상대가격은 추정계수가 -1.40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을 역시 수출공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추정계수가 0.03으로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4>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

		상수	EC_{t-1}	$\Delta LEXS_{t-1}$	ΔLRP_{t-1}	ΔLUP_{t-1}	$\Delta LSON_{t-1}$	R^2
한국	$\Delta LKEXS_t$	0.16*** (4.87)	-0.02*** (-2.57)	0.43** (2.24)	-1.40 (-1.35)	0.08 (0.59)	0.03* (1.85)	0.44
일본	$\Delta LJEXS_t$	0.01 (0.46)	-0.06 (-1.23)	0.34 (1.01)	-0.18 (-0.39)	0.26* (1.84)	0.19 (1.37)	0.20

주 : 1)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는 t-value를 나타냄.

일본의 경우 수출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으므로 수출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실업율은 추정계수가 0.26으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추정계수가 0.19이지만 10%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UR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종전의 보조금 규정에 비해 보다 더욱 강화되고 명료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융 및 세계상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는 거의 모두 금지시키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WTO체제 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 수출지원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WTO체제 하에서 정부가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제기구와 무역상대국의 직접적인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출보험제도를 꼽을 수 있다. 수출보험은 WTO체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서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국 정부는 간접적으로 수출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OECD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수출보험업자들을 보호하고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Funatsu Hideki, 1991: 679-692).

WTO 회원국 중 수출보험 지원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일본을 꼽을 수 있다. 1950년에 출발한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는 1980년대 50% 이상의 높은 활용율을 기록할 정도로 무역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2000년대 진입하여 수출보험의 이용율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는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은 한국 수출보험공사의 출범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역시 수출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의 출연을 늘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을 통해 수출보험공사의 인수 방침을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수출보험의 인수규모 및 활용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 규모가 가장 큰 일본의 수출보험제도와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에 관해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양국의 수출보험이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로 선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수출공급함수를 설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출보험 관련 변수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위해 손해율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수출보험기관의 손해율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이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증분석에 앞서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시계열들은 $I(0)$ 시계열이 아니라 $I(1)$ 시계열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음으로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여 변수들간 장기균형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인 오차수정모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CM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공급과 수출보험간의 단기동태모형을 추정하였다.

우선 한국의 오차수정모형에서 수출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압력(실업률) 역시 수출공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추정계수가 0.03으로 10%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의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출상대가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압력(실업률)은 수출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보험의 손해율은 추정계수가 0.19이지만 10% 유의수준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은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김희국(1998), 이시영·양지환·전성희(2001), 김세영·이서영(2003)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Mah(2006)의 연구 및 수출보험인수액을 통해 수출보험의 수출촉진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이서영(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앞서 제II장의 통계자료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본의 수출보험 활용율이 과거 30-40%대에서 최근 10%대로 하락하였고, 손해율 역시 평균 20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다. 특히 2005년에는 손해율이 8.13%로서 아주 저조한 상황이다. 손해율이 낮다는 것은 수출보험이 그 만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 수출보험 활용율이 2000년대 들어 20%대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3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손해율에 있어서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평균 300%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OECD 국가) 평균 손해율 28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한국은 수출보험 운영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출보험이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모형추정에 있어서 자유도의 충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 “WTO와 수출보험”, 「수출보험」, 통권133호, 한국수출보험공사, 2005.
- 김세영·이서영, “한국의 수출보험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관세학회지」, 4(2), 한국관세학회, 2003.
-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수출보험」, 통권92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
- 박운서, “수출보험의 역할과 운영방향”, 「수출보험」, 통권60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93.
- 박진근,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중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 통권41호, 한국수출보험공사, 1989.
- 이서영, “일본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8(1), 한국관세학회, 2007.
- 이서영·양지환·전성희,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역할과 국가위험도”, 「무역학회지」, 26(5), 한국무역학회, 2001.
- 이홍무, “수출보험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한일경상논집」, 17(1), 한일경상학회, 1999.
- 조운명, “일본의 수출보험 운영체제”, 「수출보험」, 통권128호, 한국수출보험공사, 2004.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10년의 이야기」, 한국수출보험공사, 2002.
- Abraham, F. and G. Dewit, “Export Promotion Via Official Export Insurance,” *Open Economies Review*, 11,, 2000.
- Arslan, I., & Wijbergen, S., “Export incentives, exchange rate policy and export growth in Turke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LXXV, 1993.
- Brander, J. and Barbara S.,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85.
- Barlow, R., & Granger, C. W. J., “The Turkish export boom: Just reward or just luck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8, 1987.
- Basevi, G., Commodity Trade Equations in Project LINK. The International Linkage of National Economic Model, Amsterdam: North-Holland, 1973.
- Dewit, Gerda, “Export Insurance Subsidization and Undistorted Trade Creation,”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9610, University of Glasgow, 1996.
- Engle, R. and C. W. Granger,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s*, 55, 1987.
- Granger, C. W. and P. Newbold, “Spurious Regression in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etrics*, 2, 1974.
- Faini, R., “Export supply, capacity and relative pric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5, 1994.
- Funatsu, Hideki, “Export Credit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3(4), 1986.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various years.

- Mah, J. S.,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subsidy on export supply: The experience of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17, 2006.
- Mah, J. S., "The Export Insurance System and Export Supply of Britain,"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No.2003-44, University of Connecticut, 2003.
- NEXI, Annual Report, various years.
- Huszagh, Sandra M. and Greene, Mark R., "FCIA : Help or Hindrance to Export,"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49, No. 2, 1982.